

# 동행하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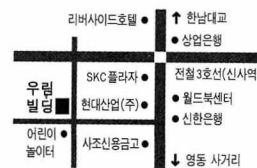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  
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였  
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피에터 클라에스 <바니타스 정물> (<춤추는 죽음>에서).

적이며 절대적인 저승의 백과사전》등 앞뒤를 다투며 출간된 죽음에 관한 세권의 책은 우리가 애써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죽음'의 저 밑바닥, 혹은 무덤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한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필립 아리에스의 마지막 저작이 된 《죽음 앞에 선 인간》(유선자 옮김, 동문선)은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되뇌며 떠나는 일종의 여행이다. 만년의 역사학자는 묘소에 남아 있는 유형의 유물들이나 각종 이콘(종교화 혹은 부조) 등 418점의 도상을 이정표로 고대 로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긴 순례를 느리지만 차분하게 인도한다.

아리에스의 순례는 묘지에서 묘비로, 횡와상(橫臥像)으로, 죽음의 의식(儀式)과 저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피며 천천히 나아간다. 연인들이 밀회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던 공공장소로 기능했던 중세의 묘지. 교회의 흠에 묻히면 그뿐, 임자를 알 수 없는 인골(人骨)로 뒤엉켜 있는 중세 수도원의 납골당은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하찮게 여겼던 이 시기 사람들의 죽음관에 기인한다.

《춤추는 죽음》(진중권 지음, 세종서적)은 아리에스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각론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아리에스의 책이 죽음의 고고학이라면, 이 책은 죽음의 미학이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중인 저자는 아리에스가 끌어모은 도상들 가운데 특히 이콘들에 초점을 두어 미술사적 관점에서 살핀다. 아리에스가 분류한 중세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죽음의 다섯가지 종류, 즉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멀고도 가까운 죽음' '너의 죽음' '반대물로 전환한

죽음'이라는 기본 틀을 그대로 지니면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책형> <죽음의 춤> <죽음의 승리> 같은 반복적인 소재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크 볼린스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저승의 백과사전》(열린책들)은 역사를 부러 구분하자면 죽음의 박물학 짚이라 할 수 있다. 천사 '가브리엘'부터 코란에 등장하는 지옥을 일컫는 '후마타'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거주지라 할 저승과 관련된 각종 이야기와 단어들을 한글 자모순으로 정리했다. 공동묘지·귀신·환생·심판·사차원·레테 등 죽음을 싸고 떠도는 상징·전설·신화 등을 마치 밀봉된 항아리를 하나하나 열어보듯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최근에 나온 책들은 애써 피하고자 했던 '죽음'의 의미를 우리 코앞으로 바짝 갖다댄다는 점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책이다.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밝히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죽음의 세계》(배영기, 교문사)가 우리나라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작품 속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 지장시왕도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지옥관' 곧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밝힌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김정희, 일지사) 등이 눈길을 끌 따름이다.

배영기(숭의여전 교양학부) 교수는 "죽음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자세에 대한 고뇌에서 시작된다. 죽음을 삶 가까이 두고 산다면 삶이 훨씬 향기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을 기록한 책은 그래서 이름답다. — 박남정 기자